



뉴 노멀 시대에 구약학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고찰*

서명수(협성대)

1. 시작하는 말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湖北省) 우한(武漢)에서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고, 2020년 1월 9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바이러스가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SARS-CoV-2)인 것을 확인하고, 동년 2월 11일 이 병원체에 의한 감염병을 ‘COVID-19’ (Corona Virus Disease 2019)로 공식 명명하였다. 이후 이 감염병은 변이를 거듭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 이제는 지구촌에 감염병 대유행(팬데믹)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이 팬데믹 현상은 디지털 인공지능(AI) 으로 특징되는 제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문명사적 전환의 추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 이 연구는 2022년도 협성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2022-0012).

이후의 시대현상을 염두에 두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논하고 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펜데믹의 종언에 대한 기대는 희미해지고, 이제는 주기적인 대유행(엔데믹)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오히려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포스트 코로나’든 ‘위드 코로나’든 코로나로 인해 지구촌 현대인들의 삶의 문법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일찍이 미래학자들이 예견했던 ‘대변화’(Great Shift)와 맥을 같이 하는 면이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인공지능(AI)의 발전과 활용이 주된 화두가 되리라는 것은 익히 논의된 바 있으며, 기후변화에 의한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 가능성 역시 예측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불현듯 기습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바이러스가 COVID-19일 것이라고는, 그리고 그것의 파괴적 권능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떤 예측 불허의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충분히,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스트/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근거는 오래 전부터 미래학자들이 대전환에 대해 얘기해 왔고, 인류의 오랜 문명의 전개과정을 놓고 볼 때 ‘문명사적 전환’의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인식의 보편화이다. 이는 기존의 규칙이나 규범, 사고와 행동양식에서 새로운 단계인 뉴 노멀 시대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기독교 신학, 좁게는 성서학, 더 좁게는 구약학 분야에서 이런 대전환기의 ‘펜데믹/엔데믹’ 현상을 목도하면서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고찰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¹ 따라서 본 소고에서

1 필자 이전에 이미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구약신학의 과제에 대해 논구한 글을 위해서는 강성열, “코로나 위기와 구약신학의 과제.” 『구약논단』 82(2021), 216-256을 보라. 여기서 그는 “감염병 신학의 확립”과 “생태계 신학의 재정립”, “약자 보호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재건”, “코로나 블루 현상과 우

는 어떤 한 주제에 대한 치밀한 세부적 고찰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연구방향의 재정향(reorientation)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과거 구약학의 연구발자취를 간략히 개관하고, 그 토대 위에서 미흡했던 점들을 지적한 한 후, 뉴 노멀 시대에 요구되는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구약학의 발자취를 더듬어

1) 해석의 발자취

1787년 교의학으로부터의 성서신학의 분리를 주장한 가블러(Johann Philipp Gabler)이후,² 제플러(J.S. Semler)와 레싱(G.E. Lessing), 헤르더(J.G. Herder)를 거쳐 마침내 벨하우젠(J. Wellhausen)에 이르러 보다 본격적으로 본문의 배후세계를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구체화되기에 이르렀다. 벨하우젠은 분명 연구의 한 시기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시기를 연 학자로 평가받고 있는데,³ 그는 오경의 자료들을 분리하고 각 자료에 이스라엘 종교사의 특정 시기를 부여하여 이스라엘 종교사의 재구성을 시도하였다. 벨하우젠 이후 시간을 축으로 하여 본문과 본문의 배후세계를 들여다보려는 일련의 노력들, 즉 통시적 접

울중 극복의 신앙"을 구약신학이 추구해야 할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성서적 근거를 탐색한 바 있다.

2 교의학으로부터의 성서신학의 분리를 주장한 가블러의 Altdorf 대학 교수 취임 강연문 "Oratio de iusto discrimine theologiae et dogmaticae, regundisque recte utriusque finibus"의 영어 번역문을 위해 서는 J. Sandys-Wunsch & L. Eldredge(trans.), "An Oration: On the proper Distinction between Biblical and Dogmatic Theology and the Specific Objective of Each," in B.C. Ollenburger *et al* (eds.), *The Flowering of Old Testament Theology: A Reader in Twentieth-Century Old Testament Theology, 1930-1990* (SBTS 1; Winona Lake, Ind.: Eisenbrauns, 1992), 492-502를 보라.

3 R. Rendtorff, "The Paradigm in Changing: Hopes and Fears," *BI* 1 (1993), 34, reprinted in V. Philip Long (ed.), *Israel's Past in Present Research: Essays on Ancient Israelite Historiography* (Winona Lake, Ind.: Eisenbrauns, 1999), 51-68(51).

근(Diachronic Approach)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역사비평적 방법(Historical-Critical Method)은 본문의 “깊이의 차원”(Dimension of Depth)을 들여다본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주로 오경의 여러 자료들(J.E.D.P)을 바탕으로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사를 재구성하려던 시도는 직전의 “구속사학과”⁴의 연구경향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었으며, 학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벨하우젠은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장직, 성전과 희생제의를 중심으로 한 종교제도의 역사를 재구성하는데 관심의 초점을 모았다. 그의 이러한 시도는 정치와 문화의 역사에 대한 제한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고 후대의 연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⁵

벨하우젠 이후 활발히 전개된 구약성서 연구는 이후 “자료비평”(Source Criticism)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었는데, 문체, 어휘, 시각, 모순과 불일치, 본문전개의 방해요소들, 중복의 문제 등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을 해명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이론적으로는 자료비평에는 문헌자료 뿐만이 아니라 구전자료도 포함되나 구전자료는 주로 양식비평과 전승비평에서 활용되었다.⁶ 양식비평은 본문의 언어와 내용 그리고 문맥상의 기능을 포함한 본문의 모든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공통의 특징을 갖는 본문의 어떤 유형(types)이나 장르(genres)를 구별해 내고, 그것들의 바탕인 삶의

4 메켄(Gottfried Meken, 1768-1831), 베크(John T. Beck, 1804-1878) 그리고 특히 콘라트(J. Ch. Konrad)와 폰 호프만(von Hofmann, 1817-1877)을 중심으로 한 19세기의 구속사학파는 성서는 “증거본문”의 수집이나 교리의 침전물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완전히 끝나지 않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증언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그런 까닭에 이들은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성서의 영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역사적인 관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구속사학파의 연구경향은 오늘날에도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G.F. 하젤, 「현대 구약신학의 동향」(이근호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22 참조.

5 Ronald E. Clements, *One Hundred Years of Old Testament Interpretat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6), 10.

6 S.R. 헤이니스, S.L. 매켄지, 「성서비평 방법론과 그 적용」(김은규·김수남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52.

자리/정황(Sitz im Leben)에 관심을 기울인다.⁷ 양식비평의 기초자로는 궁켈(Hermann Gunkel)을 들 수 있다. 그는 본래 신약학자로 출발하여 디벨리우스(M. Dibelius)와 볼트만(R. Bultmann)의 스승이 되었으나 구약학 연구로 방향을 바꿔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겼다. 벨하우젠이 오경의 여러 문서들은 각기 이스라엘 역사의 어느 특정시기에 기록된 원자료들이라는 관점에서 이스라엘 종교사를 재구성하려 한 반면, 궁켈은 문서들이 문자로 기록된 시기는 후대이며, 그 이전에는 구전의 형태로 존속했으며, 어떤 패턴 속에서 연속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여러 설화나 율법 규정들은 문서 이전 단계에서는 특정한 장소나 관습들과 관련을 맺고 독립적으로 존재했다고 믿었다.⁸ 양식비평은 세대를 거듭해도 양식은 크게 변하지 않고 고정된 형태를 유지하며, 그 형태를 통해 바탕이 되는 삶의 자리/정황으로까지 소급해 갈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삶의 자리에서 본문(texts)에 이르는 긴 과정에는 양식화 된 구전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았다.

양식비평에 이어 전승비평(Tradition Criticism)이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이는 전승비평이 양식비평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구전(oral tradition)의 중요성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차이점은 전승비평은 양식비평에서는 주목하지 않았던 구전단계 뿐만이 아니라 ‘문자이후’(postliterary)의 역사에도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이다. 전승비평에서는 전승을 논함에 있어서 전승된 자료(traditum), 전승과정(traditio), 전승자(traditionist)와 전승의 지역화 및 지역성이 중요한 논제로 취급된다. 양식비평과 전승비평을 아우르면서 전승비평을 발전시킨 대표적인 학자로는 폰 라트(G. von Rad)를 들 수 있다. 그는 범위를 확대하여 육경(Hexateuch)의 양식과 육경 안에서의 전승의 지역화와 지역

7 위의 책, 113.

8 Clement, 앞의 책, 14.

성(예, 칠칠절 전승과 길갈, 계약갱신 전승과 세겔)에 주목하였다.⁹ 또 다른 학자로는 알트(A. Alt)와 노트(M. Noth)를 들 수 있다. 노트는 폰 라트가 내린 결론들을 수용하면서도 J.E.P 전승이 여호수아서에서도 발견된다는 폰 라트의 견해를 따르지 않고, D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견해를 수용하여 남은 사경(Tetrateuch) 안에서 J.E.P의 전역사(prehistory)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였다.¹⁰ 벨하우젠 류의 자료비평에 반대하고 노트의 견해에 동조하면서도 노트와는 다른 견해를 표명한 학자로는 소위 “옵살라 학파”(Uppsala School) 학파의 일원인 스웨덴 학자 잉그넬(I. Engnell)을 들 수 있다.¹¹ 그는 사경이 P에 의해 편집되어 P의 작품이 되기 전까지의 전달과정은 구전 형태였음을 강조 했으며, 창세기에서 민수기까지에는 포로기 이전 고대 자료와 포로기 이후 자료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¹² 이점은 노트의 견해와 확연히 다른 점인데, 이후 학계의 호응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듯 20세기 초, 중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구약학 연구는 거장들에 의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1940년대 후반에서 50년대에는 학파(School)로 호칭되는 그룹이 형성되어 구약학의 숲은 한층 풍요로웠다. 이 시기를 풍미한 학파로는 고고학적 연구의 토대 위에서 성서기록의 역사성 검증에 기여하려 했던 미국의 올브라이트 학파(Albright School), 전승사적 연구에 기여한 독일의 알트-노트 학파(Alt-Noth School), 고대 근동의 신화와 종교, 정치-종교문화와의

9 G. von Rad, *Das formgeschichtliche Problem des Hexateuch* (BWANT IV, 24, Stuttgart, 1938). 영역본, *The Problem of the Hexateuch and Other Essays* (London: Oliver & Boyd, 1966).

10 M.Noth, *Über lieferungsgeschichtliche des Pentateuch* (Stuttgart: W. Kohlhammer, 1948). 영역본, *A History of Pentateuchal Tradition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2).

11 잉그넬은 “옵살라 학파”라는 명명을 거부했지만 옵살라대학 동료교수였던 링그렌(H. Ringgren)은 엘그넬 사후에 출간된 그의 저서 영역본 서문에서 “옵살라 학파”라는 용어는 그가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업적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2 I. Engnell, *Gamla Tetsamentet, En traditionshistorisk Inledning*, Stockholm, 1945). John T. Willis에 의한 영역본, *Critical Essays on the Old Testament* (London: S.P.C.K., 1970), 50-67(“The Pentateuch”).

연계 속에서 고대 이스라엘을 탐구했던 영국-스칸디나비아 학파(British-Scandinavian School) -일명 신화와 제의 학파(Myth and Ritual School)- 등이 거명될 수 있다.¹³ 이들 학파는 나름의 독특성을 가지고 성서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는데,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성서본문을 통해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역사적, 사회적, 종교적 실체들을 찾는데 더 비중을 두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통시적 접근으로 많은 학문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본문 자체와 관련된 여러 측면을 소홀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70년대에 이르러 이런 통시적 접근에 대한 반성으로 정경비평(Canonical Criticism)이 대두되었다. 정경비평은 본문의 구성요소와 배후세계에 집중되던 관심을 본문자체, 나아가 본문의 최종형태에로 옮겨놓았다. 본문의 최종형태에 대한 관심은 정경비평 이전에 이미 편집비평에서 싹트었으나 편집비평은 전승비평과 양식비평의 통찰과 전망의 토대 위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역사비평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었다.¹⁴ 따라서 본문의 최종형태에 대한 강조는 정경비평에 이르러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초에 성서의 권위를 찾기 위해 성서내의 단일하고도 지배적인 신학적 구조 안에서 성서신학(Biblical Theology)을 쓰려는 시도에 대한 반응으로 차일즈의 ‘위기에 처한 성서신학’이 나왔다.¹⁵ 이는 역사비평의 결과에 대한 점증하는 불

13 이들 학파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위해서는 R. Rendtorff, *Canon and Theology* (Edinburgh: T. & T. Clark, 1994), 제3장(“Between Historical Criticism and Holistic Interpretation: New Trends in Old Testament Exegesis”를 보라. 특별히 스칸디나비아 학파(종종 ‘울살라 학파’로 불리기도 하나 이 경우에는 같은 시기의 노르웨이 학자인 S. Mowinckel이 포함될 수 없으므로 지역적 범위가 넓은 명칭이 더 적합해 보인다)에 관해서는 R. Syren, “Before the Text After: The Scandinavian School and the Formation of Scripture,” in D. Smith-Christopher, ed. *Text and Experience: Towards a Cultural Exegesis of the Bible*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225-237을 보라.

14 Hayness & McKenzie, 「성서비평 방법론과 그 적용」, 140. 대부분의 성서비평 방법은 구약학자들에 의해 개발되어 신약학자들에게로 옮겨간 반면 편집비평은 신약학자들의 복음서 연구에서 개발되어 구약학자들에게로 옮겨왔다. Cf. John H. Hayes & Carl R. Holladay, *Biblical Exegesis* (Atlanta: John Knox Press, 2nd edn, 1987), 106.

15 Brevard S. Childs, *Biblical Theology in Crisis* (Philadelphia: Westminster, 1970).

만족과 성서의 권위는 원저자의 의도에 의존해있다는 역사비평의 전제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되었다.

정경비평의 또 다른 주창자인 샌더즈(J.A. Sanders)는 수용미학(Rezeptionsästhetik)을 주된 방법론으로 삼은 “콘스탄쯔 학파”(Konstanz School)의 핵심멤버인 야우스(Hans Robert Jauss)의 영향을 받아 정경비평을 제안하였다.¹⁶ 분명 정경비평의 챔피언은 차일즈와 샌더스이나 둘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차일즈가 정경의 특정본문의 최종적인 형태—차일즈에게 있어서는 마소라 본문형태(Masoretic form)—를 강조한 반면, 샌더스는 정경화 과정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샌더스에게 있어 ‘기능’(function)으로서의 정경은 ‘형태’(shape)로서의 정경에 선행한다.¹⁷ 통시적 접근에서 공시적 접근으로의 이행에 있어 의도적이었던 아니었던 분기점 역할을 한 정경비평은 연구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위치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정경비평의 두 거장인 차일즈(B.S. Childs)와 샌더스(J.A. Sanders)를 제외하고는 후속연구세대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¹⁸

본문의 최종형태에 대한 강조는 지난 1980-90년대에 본격적으로 대두되

16 J.E. Brenneman, *Canons in Conflicts: Negotiating Texts in True and False Prophe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p. 15. Jauss and Sanders 사이의 관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30-34를 보라. 해석학자 가다머의 영향을 받은 야우스는 텍스트의 동일성을 유지해 주는 불변 요소의 존재를 부정한다. 그에 따르면, 예술작품은 ‘기대지평’(Erwartungshorizon)의 변천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획득해 가는데, 이러한 의미의 획득은 텍스트와 독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지평융합’(Horizontverschmelzung)에서 이루어진다.

17 Donn F. Morgan, *Between Text and Communit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0), 11-29. 정경비평에 대한 차일즈와 샌더스 사이의 대화내용은 *HBT* 2 (1980), 113-211에 수록되어 있다.

18 차일즈에 의해 개발된 정경비평, 즉 그의 정경적 주석과 해석학적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가다머(Hans-Georg Gadamer)의 사상과 차일즈의 글을 비교하고, 정경비평을 문학이론과 포스트모던 신학(postmodern theology) 사상 안에서 제기되고 있는 토론의 장에 위치시킴으로써 구약성서에 대한 ‘새로운 “정경적” 접근’(New “Canonical” Approach)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없지는 않으나(Mark G. Brett, *Biblical Criticism in Crisis: The Impact of the Canonical Approach on the Old Testament Stud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전체적으로 볼 때 정경비평의 후속작업은 부진한 실정이다.

기 시작한 공시적 접근의 시동(始動)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현대 언어학 분야에서 공시적 접근에 강조점을 둔 언어학자 소쉬르(F. de Saussure)에 빚진 바 크다. 그의 저서 ‘일반 언어학 과정’(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은 본래 1901년에 출판되었으나 1960년 전까지는 그의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968년 이후에 이르러 혁신적인 저작으로 인정받게 되었다.¹⁹ 공시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한 소쉬르는 언어를 체스게임에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체스판에서 각 말은 결정된 순간에 자신의 위치를 차지하고 전체와 유기적인 관계에 놓이듯이 각각의 어휘들로 구성된 언어 역시 주어진 자신의 위치에서 전체와의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통시적인 접근보다는 공시적인 접근이 전체를 설명하는데 보다 유효하다는 견해를 정립하였다.²⁰ 소쉬르의 이와 같은 언어이론은 구조주의(Structuralism)에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이후 공시적 접근에 기초한 여러 방법론들에도 영향을 주었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이처럼 전개된 공시적 접근과 더불어 활발히 전개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연구방법론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어떻게 의미 있는 의사전달이 기호로 작동하는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가에 관심을 기울이는 기호학 이론들(semiotic theories)과 어떻게 의미가 생산되고 전달되는가에 관심을 기울이는 의미론 이론들(semantic theories)에 기초하여 본문 안에 있는 상이한 특징들과 특징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려는 구조주의 비평(Structural Criticism)과 ‘있는 그대로’(as it stands)의 본문의 이야기(narrative)를 문학적 관점에서 읽어내는 내러티브 비평(Narrative Criticism)²¹, 독서과정에서 독자와 본문 사이의 무언의 대화를 통한 의미의 재

19 한국어 원역본으로는 『소쉬르의 1·2·3차 일반 언어학 강의』(김현권 옮김), (서울: 그린비, 2021)가 출판되어 있다.

20 Cf. J. Lechte, *Fifty Key Contemporary Thinkers: From Structuralism to Postmodernity* (London: Routledge, 1994), 150; David Lodge, *Modern Criticism and Theory*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88), 1.

21 “Narrative Criticism”이 우리나라에서는 ‘설화비평’, ‘서사비평’, ‘서술비평’ 등으로 번역되고 있는

생산, 즉 본문의 의미는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자기 입장에서 의미(meaning)와 의의(significance)을 창조하거나 재생산해 낸다는 독자의 능동성에 주목한 독자반응비평(Reader Response Criticism), 페미니스트 비평(Feminist Criticism), 해체주의로 대표되는 후기구조주의 비평(Poststructural Criticism) 등 다양한 비평 방법론들이 성서학에 접목되어 전개되고 있다.²²

2) 발자취에서 느끼는 아쉬운 점들

앞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듯이 가블러 이후 성서학 연구는 주로 통시적인 역사비평적 방법에 의해 주도되었고,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공시적 접근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는데, 현재는 공존하면서 조화를 추구하기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이 익숙한 것의 효과를 경험하면서 자신이 택한 방법론을 관성적으로 고집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 시점에서 반성적으로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20세기 성서학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로 서구 백인 중산층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리고 학자나 학파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하나의 공통점은 시대상황과의 대화와 소통에 소홀했다는 점이다. 서구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역사적 사건이라면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²³과 러시아 혁명, 소비에트 유니온의 등장에 따른 냉

데, 아직 통일되어 있지 않기에 편의상 '내러티브 비평'으로 적는다.

22 이들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George Aichele and et al, *The Postmodern Bibl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5)를 보라.

23 히틀러의 나치 정권 하에서 전쟁의 정당성을 논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기에 그 시절은 접어두고, 나치정권의 붕괴 이후에 전개된 전쟁에 관해 논의된 주된 내용은 현실에서 전개되는 전쟁의 정당성에 관해 구약성서에 근거한 윤리적, 사회철학적 논의보다는 고대 이스라엘의 전쟁의 성격에 관한 논의에 초점이 모아졌다. 1950년대에 출간된 폰 라트(Gerhard von Rad)의 *Der Heilige Krieg im alten Israel* 이래 전쟁에 관한 논의에서 “여호와와의 전쟁”(Yahweh's War), “하나님/신의 전쟁”(Divine War), “거룩한 전쟁”(Holy War) 등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전쟁의 윤리성과 정당성에 관한 성서 윤리적 논의는 취급되지 않았다. 폰 라트의 이 저서의 영역본으로는 *Holy War in*

전체제의 전개와 해체일 것이다.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 성서학은 시대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고답적으로 ‘본문에서 배경으로’ 또는 ‘배경에서 본문에 이르는’ 과정과 내용에 탐닉하였다. 그 결과 본문과 본문의 배후세계에 대한 지식의 총량은 획기적으로 증대되었지만 당대 사회와 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시대적 상황과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성서학적인 대답이나 어떤 함의를 제공해 주는 일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했다. 유럽에서 신학적 학문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동안 유럽의 교회들은 우선 양적으로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유럽 교회의 침체의 원인을 신학적 기여의 결여에서 찾고자 하는 이들도 있다.

블트만이 말했듯이 신학(theology)은 어원처럼 신에 관한 학문이나 불가피하게 인간학(anthropology)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신 없는 인간은 상상할 수 있어도 인간 없는 신은 상상하지 않는다. 신학이 천지창조 이전의 신에 대해서는 사유하지 않는 이유는 이 때문일 것이다. 신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인간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고, 인간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는 신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신학의 특징이다. 그리고 인간을 말할 때는 인간의 본성적 측면과 더불어 사회적 인간, 나아가 역사적 인간을 말할 수밖에 없다. 신학이라는 학문적 특징과 숙명이 이렇건만 20세기 성서학은 시대상황을 변영한 해석학적 고뇌 없이 마치 학문의 외딴 섬에 머물고 있는 듯 주로 텍스트와 텍스트의 배후관계를 천착하는 고증학적, 훈고학적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20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이런 경향에 대한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Ancient Israel (translated and edited by Marve J. Dawn & introduction by Ben C. Ollenburger;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1)가 있다. 여기에 부록으로 포함된 Judith E. Sanderson, “War, Peace, and Justice in the Hebrew Bible: A Representative Bibliography”는 고대 이스라엘의 전쟁에 관한 대표적인 문헌정리로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고대동방문화권에 속한 고대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한 성서의 제시(representation)를 서구의 학자들은 동양(the Orient)보다는 서구(the West)의 필요와 관점에서 적용하고 문헌적 수용(literary acception)을 했다는 것이 그것이다.²⁴ 고대 이스라엘의 출현 과정에 관한 역사적 해명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올브라이트 학파는 충분한 고고학적 발굴 없이 의식했던 의식하지 않았던 교회의 정서에 부합하는 결론으로 원주민의 정체성에 대한 고려 없이 가나안 정복설 쪽에 기울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나안 진입에 관한 논의에서 평화롭고도 점진적인 유목정착설을 주장한 알트-노트 학파의 주장에는 당시 활발히 논의되던 유럽의 시온주의의 운동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²⁵

전체적으로 볼 때 20세기의 구약학은 시대적, 역사적 상황에 대한 성서학적 답변을 제시하기 위한 성찰에는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1, 2차 대전이 유럽에서 발생했고 정치, 이념적으로도 파시즘이나 나치즘이 유럽에서 발흥했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은 시대상황에 대해 서로 자유롭지 못했고, 적극적으로 성서적 답변을 추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런 정치적 상황이나 이념을 떠나 본질적 가치이자 이슈인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인 인권문제,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전 인류의 시대적 과제인 환경과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자연재앙 및 식량 문제 등이 시대의 중요한 화두이자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구약학자들의 신학적인 성찰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당장 서재의 책꽂이에서, 또는 도서관에 가서 이런 문제들을 다룬 구약신학 서적들이 있는지 찾아보면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구약신학에 관한

24 Mary E. Mills, *Historical Israel: Biblical Israel* (London·New York: Cassel, 1999), 18.

25 K. Whitlelam, *The Invention of Israel* (London: Routledge, 1996), 119.

책들 중 이런 문제들에 대해 부분적으로나마 직접 언급하고 있는 학자는 크니림(Rolf P. Knierim) 정도이다.²⁶ 20세기 구약학 분야에서 나름의 족적을 남긴 23명의 구약학자들의 학문세계를 소개하고 있는 매우 독특한 저서에서도,²⁷ 성서학과 성서학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사전²⁸에서도 자기 시대의, 특히 20세기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 학자로 소개되어 있는 구약학자는 찾아보기 어렵다.²⁹

서구 구약학계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한국의 구약학계 역시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에 대해 아직 주목할 만한 연구를 펼쳐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제 21세기에 활동하는 대한민국의 구약학자들은 이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연구방향의 조정을 통해 선도적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향후 구약학이 지향해야 할 네 가지 연구 방향에 살펴보고자 한다.

3. 뉴 노멀 시대에 구약학이 지향해야 할 해석의 방향

코로나 바이러스의 퇴치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기에 백

26 Rolf P. Knierim, *The Task of Old Testament Theology: Substance, Method, and Cases*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5), 225-243; 「구약신학의 과제 ①」(강성열 역),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383-412(“식량, 땅, 그리고 정의”).

27 벤 C. 올렌버그, 엘머 A. 마르텐스, G.F. 하젤, 「20세기 구약신학의 주요 인물들」(강성열 옮김),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28 John H. Hayes(ed.), *Dictionary of Biblical Interpretation A-J, K-Z*(Nashville: Abingdon, 1999).

29 부분적인 관심과 성취를 보여주는 몇몇 학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강사문의 「구약의 자연 이해」(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에는 이와 관련된 글이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일관된 주제 하에 저술된 저서는 아니고 그간 발표한 글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보인다. 2021년도에 한국구약학회의 후원으로 구자용을 중심으로 생태학적 성서해석을 위한 콜로키움이 결성되어 진행되고 있는데 바람직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신 집중률을 높이면서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 방역 모델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디지털 인공지능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현대인의 생활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전개될 변화상은 실로 광범위하여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새로운 시대의 모습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지양하고 누구나가 거의 피부로 느끼고 있고 인정하는 현대인의 삶의 정황, 특별히 한국 사회와 교회, 신학계를 염두에 두고 구약학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에서 취급하는 개별 내용들은 이미 신학의 다른 영역에서 논의 된 바 있으나 구약학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관련하여서는 종합적으로 취급된 적은 없기에 종합과 적용의 의미는 담보되리라 본다.

1) 시대정신으로서의 ‘ESG’와 생태신학적 성찰의 강화

세계교회협의회(WCC)는 1983년 제6차 총회 때 “정의, 평화 그리고 창조 질서의 보존”(Justic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을 세계교회가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장기과제로 설정했고, 1990년에는 ‘JPIC 서울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렇듯 20세기 후반기에 이르러 “창조질서의 보존”으로 대변되는 생태계의 위기의 문제는 중요한 교회, 신학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WCC가 이런 운동의 적극적인 전개를 주창하였다는 것은 그 이전부터 생태계의 위기 문제가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JPIC 서울대회’가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서 창조질서의 보존에 관한 운동은 활발히 전개되지 못했으며, 구약성서의 처음 세 장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관한 서사로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한국의)구약학자들은 생태계의 위기라는 현실적 관심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하기 보다는 P와 J라는 전통적인 자료비평의 틀 안에서 본문을 해석하는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여전히 WCC를 용공단체로, 환경운동을 이념적인 시각에

서 ‘좌파운동’ 정도로 치부하고 거부감을 드러내는 경향도 있다.

지구를 하나의 집으로 인식하고 생태학(ecology)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학자는 독일의 해양생물학자이자 의학자, 진화학자인 헤켈(Ernst Haeckel, 1834-1919)이다. 그는 ‘집’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oikos’와 ‘logos’를 합성하여 ‘집에 관한 학문’이란 뜻으로 ‘ecology’를 창안하였다. 지구의 자연계는 인간과 동식물이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거대한 집이란 뜻이다.³⁰ 그리고 생태계(ecosystem)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과학자는 영국의 학자 아서 탠슬리(Sir Arthur Tansley, 1871-1955)이다. 그는 동식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무생물의 조건인 비생물적 환경(abiotic environment)도 생물과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생태계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는 자연은 아무렇게나 섞여있지 않고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³¹

생태계의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 되고 있었고, 지금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오늘날 인류를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생태계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첫 숙주는 박쥐로 박쥐의 서식지 파괴에 의한 바이러스의 노출이 시작되었다는 진단이 있다. 2021년 도에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시베리아와 미국, 그리고 캐나다 북부지역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였고,³² 유럽(특히 독일)에서는 급작스런 폭우에 의한 홍수로 많은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여전히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런 기상이변은 비단 이런 지역뿐만이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규모의 차이일 뿐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성서

30 김윤성, 권재준 「그림으로 이해하는 생태사상」(서울: 개마고원, 2009), 136.

31 위의 책, 184.

32 지구 온난화로 인해 소나무좀(pine beetle)과 같은 크기 4mm의 딱정벌레의 번식 속도가 빨라져 개체 수가 두 배로 늘어나게 되었고, 그것들이 소나무나 잣나무를 고사시키고, 말라죽은 나무들이 산불의 주원료가 되고 있다. 2020년 17만 에이커(687km)를 태운 캘리포니아 시에라 네바다 산맥 산불 때 불탄 목재의 90%는 딱정벌레에 의해 죽은 것이었다고 소방 관계자는 증언한 바 있다. 이민정, “서울 3배’ 태운 美산불, 뜻밖의 범인은 좁쌀만한 이놈이었다.” 중앙일보 인터넷판(2021.08.14).

학자는 환경문제에 대한 그간의 지적 무관심 또는 지체현상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관점에서 본문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신학은 불가피하게 현실의 문제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반응할 수밖에 없다. 신학을 제도적 의미의 교회라는 좁은 틀에 가두어 놓고 그 틀 안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근본주의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고, 그 창조세계에 거하며, 그 창조세계를 계속 새롭게 하고 있다(Creatio Continua)는 것은 기독교 창조신학의 핵심이자 본질이며, 큰 틀에서 하나님 선교(Missio Dei)도 이 창조사상과 무관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많은 구약학자들이 “창조질서의 보존”에 관한 논의를 조직신학이나 신학의 다른 분과에 맡기다시피 하고 여전히 전통적인 관점과 틀 안에서 성서본문을 해석해 온 것은 재고해 봐야 할 점이라 하겠다. 실사구시의 관점보다는 경전 자료의 관점에 치우친 측면이 크다.

다행스럽게도 21세기에 들어서서는 ‘너무 많이 가지고도 결코 만족하지 않고 더 더’(Too Much and Never Enough)를 추구하던 탐욕적 기업 경영자들도 이제는 기업의 이익의 관점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ESG’(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ESG’는 2004년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의 초대 사무총장이었던 게오르그 켈의 주도 하에 정립, 주창되었는데,³³ 이제는 거역하기 어려운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의 경영자들의 인식변화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과도한 탄소배출을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인식하고 탄소 중립을 향한 기업과 정치권의 노력은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현실 생활에서 영향력이 지대한 이 두 영역에서의 노력은 늦었지만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간 기업이나 정치

33 김자현, “ESG는 거대한 전환... 기술변화-탄산소 접목이 새 경쟁력” 동아일보 제 31026호 (2021년 5월 27일) B3면. 게오르그 켈의 주장에 따르면, “ESG는 한마디로 산업시대에서 벗어나 디지털과 청정에너지 중심의 미래로 인식이 바뀌는 거대한 전환”을 의미한다.

영역보다 훨씬 앞서 인문, 사회, 자연과학 분야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온 생태 사상의 구축에 성서학자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 성찰해 볼 때 여전히 미흡했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³⁴ 따라서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이 시대의 성서학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생태학적 성서해석에 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시대의 요구에 대한 당연하고도 정당한 반응이며, 신학적 태도의 기본에 해당한다.

2) 윤리적, 사회철학적 성찰의 강화

20세기 초에서 1980년대까지 성서학 연구는 주로 서구 중산층 백인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 시기는 두 번에 걸친 세계 대전과 현실 사회주의의 출현과 몰락, 제국주의의 해체 등 수많은 역사적 사건과 사회변동이 일어난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 해석사에 대한

34 하벨(Norman C. Habel)을 중심으로 'SBL Annual Meeting'에서 생태학적 성서해석학 세션(Session on Ecological Hermeneutics)을 구성하고 이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토록 하고, 책으로 묶어내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Exploring Ecological Hermeneutics*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8). 하벨은 여기서 생태학적 성서해석에서 전제하는 여섯 개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① 내적가치의 원칙: 우주와 지구, 그것의 모든 구성요소들은 다 내적 가치(value, worth)를 가지고 있다. ② 상호연결성의 원칙: 지구는 삶과 생존을 위해 서로 의존적으로 연결돼 있는 생명체들의 공동체이다. ③ 목소리의 원칙: 지구는 불의에 대항하고, 찬양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주체이다. ④ 목적의 원칙: 우주와 지구, 그리고 그 안의 모든 구성요소들은 역동적이고도 우주적인 설계(design)의 전반에 걸쳐 각기 자기의 자리(place)를 가지고 있다. ⑤ 상호관리성의 원칙: 지구는 균형 있는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안의 존재들은 서로 지배하기보다는 파트너로서 함께하며 책임 있는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⑥ 저항의 원칙: 지구와 지구의 구성원들은 인간의 불의로부터 단지 고통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의를 위한 투쟁으로 인간의 불의에 적극적으로 저항한다.

생태학적 성서해석을 시도한 "Earth Bible Commentary" 시리즈가 Bloomsbury 출판사에 의해서도 출간되고 있는데, 현재 8권(시편, 전도서, 요나, 룻기, 요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골로새서)이 출간되어 있다. 8권의 저자는 각기 다르나 시리즈 편집자는 하벨이다. 그리고 하벨과 Shirley Wurst에 의해 Sheffield Academic Press에서 "The Earth Bible" 시리즈가 출판되었다(*Readings from the Perspective of Earth; The Earth Story in the Genesis; The Earth Story in Wisdom Traditions* etc). 이렇듯 생태학적 성서해석은 하벨이 주도하고 있으나, 다른 개별 학자들에 의해서는 생태학적 성서해석을 보여주는 비중 있는 저작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신약학자의 저서이기도 한 데이빗 G. 호렐, 「성서와 환경」(이영미 옮김), (오산: 한신대학교출판부, 2014)은 생태성서신학 입문서로 기억될 것이다.

개관에서 볼 수 있듯이 시대적 사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성서에
서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은 부진했다. 철학과 문학의 영역에서는 전후 실존
주의적 고뇌를 선명히 드러내는 작업들이 있었지만 성서학 분야에서는 마치
성서학이 자연과학에 속한 분과 학문에 속하기나 한 듯 또는 역사의 외딴 섬
에 머물고 있는 듯 시대적 고민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³⁵ 그
러다 1990년대에 이르러 서구 학자들 중에 포스트 모던적 목소리를 내는 학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북미 원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 아시아 아
프리카의 탈식민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제3세계의 성서학자들과 그에
동조하는 일부 서구 학자들이 서구적 시각에서 벗어나 나름의 목소리를 내
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속화된 세계의 글로벌화의 물결 속에서 지역화의 의
미를 살려내려는 목소리도 드러나기 시작했다.³⁶ 그러나 아직도 한국적 상
황, 한국 성서학계의 연구지평은 부분적으로 이런 새로운 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반영하는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까지의 경향에서 크
게 벗어나지 못한 면이 있다. 이는 성서학이 신학의 다른 분야에 비해 유일
하게 성서라는 유일무이한 정경적 텍스트(Canonical Text)를 바탕으로 하기 때
문에 역사와 인간의 사회적 삶을 말할 때 필연적으로 텍스트 안과 배후에 놓
여있는 고대 이스라엘의 그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불가피성과 ‘선생한테
배운 대로’의 관성이 작용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구약학은 신학의 큰 테두리 안에 있고, 신학은 불가피하게 당대의 문제에

35 줄 예외적으로 신약학자 볼트만(R. Bultmann)은 처음에는 스승인 쿤겔(H. Gunkel)과 바이스(Weiss)의 영향을 받아 첫 저서로 「공관복음 전승사」(*Die Geschichte des synoptischen Tradition*, 1921)를 저술했지만, 전후에 내놓은 그의 주저인 「신약성서 신학」(*Die Theology des Neuen Testaments*, 1948-53)에서는 실존주의와 신간트학과의 영향을 드러냈다. Hayes, *Dictionary of Biblical Interpretation*, 148-49.

36 탈식민주의적 관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구물로는 Sugirtharajah가 주도하여 Sheffield Academic Press에서 간행된 일련의 《The Bible and Postcolonialism》 시리즈를 들 수 있고, 글로벌 시대를 다룬 연구물로는 북미성서학회(SBL)에서 간행한 일련의 《Reading the Bible in the Global Village》 시리즈를 들 수 있다.

어떤 형태로든 반응하고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구약학 역시 이점을 간과하거나 초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미시적인 것까지를 다 포괄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중요한 것은 거시적이든 미시적이든 성서학자로서 중요한 사회적 의의와 함의를 지닌 사건과 이슈들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성찰, 사회철학적인 성찰을 가미한 성서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³⁷ 그리고 성서본문에 스며들어 있는 보다 근원적인 철학적 이슈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창세기의 원역사 안에서 세계의 질서와 분류, 지식의 가능성과 한계, 인식과 자유, 죽음의 숙명성, 노동의 기원과 가치, 질투와 살인의 심리학, 문화충돌, 문명의 고도화와 인류의 비극, 확산과 응집, 언어의 단일화와 다양화 등 많은 철학적 주제들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20세기 초중반에 풍미한 역사비평적인 방법들은 당대의 시대적, 정신적 상황에 적합한 메시지를 건져내는 성서해석보다는 주로 본문의 자료적 단위와 범위, 전승과 전승의 배경 등에 정도된 분석작업을 수행하였다. 본문에서 철학적 이슈를 끌어내지 않거나 철학적으로

37 현대의 윤리적 이슈를 염두에 두고 구약성서의 윤리적 이슈를 취급한 연구는 부족한 반면, 성서에 투영된 구약시대의 윤리적 이슈 자체를 취급한 연구들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구약시대의 윤리적 이슈를 취급한 학술자료로는 John Barton, "Understanding Old Testament Ethics." *JSTOT* 9 (1978): 44-64; idem, "Approaches to Ethics in the Old Testament," in John Rpgerson(ed.), *Beginning Old Testament Study* (London: SPCK, 1983), 113-130; "The Basis of Ethics in the Hebrew Bible." *Semeia* 66 (1994): 11-22; *Ethics and the Old Testament* (London: SCM Press, 1998); *Understanding Old Testament Ethics: Approaches and Explanation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2003); Cyril Rodd, *Glimpses of a Strange Land: Studies in Old Testament Ethics* (Edinburgh: T. & T. Clark, 2001); Christopher J.H. Wright, *Old Testament Ethics for the People of God* (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2004)가 있다. 이외에도 구약시대의 윤리에 관한 방대한 연구목록을 위해서는 Eckart Otto, "The Study of Law and Ethics in the Hebrew Bible/Old Testament," in M. Saebø(ed.), *Hebrew Bible/Old Testament: The History of Its Interpretation* III/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5), 594-597을 보라. 다행히 한국의 신진 학자인 배선복이 구약성서의 윤리적 측면에 관심을 갖고 학위 논문을 완성한 후 탐구하고 있어 기대되는 바 크다. 배선복, "제사장 문서의 법과 내러티브에 나타난 윤리와 도덕성(Ethics and Morality in the Priestly Law and Narrative)." (미간행 시카고 대학교 신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1); idem, "제사법의 회개에 나타난 책임과 윤리: 아 동사와 레위기 6장 1-7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제 28권 2호(통권 84집), 105-141.

본문을 해석하지 않는다면 본문은 ‘철학의 부재’ 상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레고리우스(Gregorius the Great)는 “성서는 독자와 함께 성장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 말을 다시 짚어보면 성서의 내용은 독자의 해석학적 사유에 그 내용이 더 풍부해진다는 뜻일 것이다.³⁸

오늘날 서구 교회가 활기를 잃어버리고, 한국 교회도 점차 활기를 잃어가면서 경박화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윤리적 관심과 철학적 관심의 부재도 한 몫 하고 있는 것인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신학이, 교회가 사회와 인간의 사회적 삶의 문제, 나아가 인간 존재의 본연의 문제 등에 대해 의미 있는 대답을 주지 못한다면 사람들(교인들)은 어떤 갈증과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틈을 타 이단, 사이비 종파가 득세하며 파고든다는 것은 2020년도에 일어난 신천지(新天地) 소동이 분명하게 보여준 바 있다.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의 요인은 다양하나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속성의 흡입과 비지성적인 부흥사적 흥행 요소 등에 의해 추동된 면이 크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윤리성보다는 도덕성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는데, 이는 예수의 가르침의 성격과 방향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의 철학자 뤼방 오지앙(Rewen Orgien)의 견해에 따르면, 윤리는 자기 자신과 관련된 문제, 자기만의 독특성, 자기 입장에서의 비평과 발명, 자기만의 내면적 욕망과 관련되어 있고, 도덕은 유사성에 기초한 금지

38 구약학자인 앙드레 라콕(André LaCocque)과 철학자이자 해석학자인 폴 리코르(Paul Ricoeur)가 대화를 통해 공저한 *Thinking Biblically: Exegetical and Hermeneutical Studie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성서의 새로운 이해: 주석학과 해석학의 대화」(김창주 옮김), (서울: 살림, 2006)에서 “성서적으로 사유하기”란 기본적으로 주석학적 토대 위에서 철학적으로 사유하기를 의미한다. 유대인 정치철학자 요람 하조니(Yoram Hazony)는 *The Philosophy of Hebrew Scriptur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구약성서로 철학하기」(김구원 옮김), (서울: 홍성사, 2016)에서 철학적 성서읽기를 보여주는 다섯 편의 사례에서 윤리학, 정치철학, 인식론, 존재와 진리, 이성과 믿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흥미로운 해석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코르나 하조니는 철학적 성서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및 의무와 관련되어 있다.³⁹ 그간 한국교회는 도덕적 이슈에는 민감하게 반응한 반면 윤리적 이유에 대한 가르침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 유사성 또는 동일성에 기초한 관습에 어긋나는 행동과 견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반면, 개인의 독특성과 욕망에 기초한 행동과 견해에 대해서는 등한시 하는 경향이 짙다. 그런데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가르침은 도덕적인 규범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윤리적 가르침의 성격이 더 짙다.

3) 공공신학(Public Theology)적 성찰의 강화

성서학적 연구가 단순히 상아탑과 학회에서나 이해되고 통용되는 지적 활동에 머물 뿐 사회나 교회에 어떤 적용요소를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정태적(情態的) 활동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신학은 불가피하게 인간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이슈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분야별로 탐구의 장을 펼쳐나가야 한다. 오늘날 신학은 좁은 의미의 교회 영역(ecclesiastical sphere)에 봉사하는 학문이 되기보다는 보다 넓은 공적 영역(public sphere)에 봉사하는 학문이어야 한다. 교회는 사회 안에 있는 사회의 한 조직체로 인식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교회는 사회의 통제권 밖에 있는 초법적 조직체가 아니라 사회라는 공적 영역에 속한 종교단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간 신학의 영역에서 기독교인과 교회의 행동윤리에 관한 논의와 성찰은 주로 기독교 윤리학 분야에서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전통적인 의미의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학문적 범주설정으로는 현대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 포괄할 수 없을 정도로 공적 영역은 다양하고 다층적

39 최익현, “뤼방 오지앙(Rewen Orgien)과의 대화.” 「교수신문」 716호(2014/1/13일, 9면).

인 문제와 이슈들로 가득하다. 그래서 신학분야에 새롭게 대두된 새로운 학문영역이 ‘공공신학’이다. 서구에서는 이미 ‘광장신학’(Theology in the Square/Theologie in der Öffentlichkeit)의 의미로 공공신학이 짝을 튀워 자라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소개되고 있는 실정이다.⁴⁰ ‘공공신학’이란 용어는 1974년 마티(Martin Marty)에 의해 처음 명명되었는데,⁴¹ 이는 ‘시민종교’(civil religion)가 일반적으로 국가와의 관계 안에서 종교를 바라보는 것과는 달리 구체적으로 기독교의 관점/입장(christian standpoint)에서 공익(common good)과 사회정의, 공정사회, 국가의 복지 등 여러 가지 공공가치를 추구하는 일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것을 지향한다.⁴² 이를 위해 교회 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회와 더불어 참여하고 대화한다. 공공신학은 기존의 정치신학(Political Theology)과 중첩되는 면이 있으나 분명한 차이점도 있다. 정치신학은 국가와 정부, 정치시스템에 대해 보다 비중을 두는 반면, 공공신학은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just society)형성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점에 있어서 공공신학은 정치신학보다는 온건한 성격을 띤다고 말할 수 있다. 정치신학이 혁명적이라면 공공신학은 개혁적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 시대의 한국사회에서 교회의 이미지와 위상은 급격히 실추되고 있다. 교회에 대한 사회의 염려는 심각한 수준에 이

40 한국에서의 공공신학의 필요성과 제약에 관한 가장 최근의 논의를 위해서는 Minseok Kim, *Public Theology in Korea? Rereading John Calvin* (Zürich: LIT Verlag, 2021)를 보라. 공공신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하버마스(Habermas)의 공적 영역 이론에서의 ‘공공’(public)의 의미, Heinrich Bedford-Strohm의 공공신학의 여섯 가지 특징과 그것을 통해 본 16세기 제네바에서의 깔뱅의 역할과 저작들을 재평가 한 후 한국에서의 공공신학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탐색한 가장 최근의 연구서이다.

41 Martin E. Marty, “Reinhold Niebuhr: Public Theology and the American Experience.” *The Journal of Religion* 54/4(1974), 332-359.

42 공공신학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는 Robert Benne, *The Paradoxical Vision: A Public Theolog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Minneapolis, Minnesota: Fortress Press, 1995); Sebastian Kim, *Theology in the Public Sphere: Publish Theology as a Catalyst for Open Debate* (London: SCM Press, 2011); Katie Day and Sebastian Kim(eds.), *A Companion to Public Theology* (Leiden: Brill, 2017)을 보라.

르렀다는 것은 이제 부인하기 어려운 정도이다. 이러한 시점에 ‘한국에서의 구약학하기’ (doing OT Studies in Korea)의 비중은 개혁적인 성격의 공공신학적 탐구에 모아질 필요가 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화두 중 하나는 빈부격차 해소와 더불어 ‘공정’의 성취이다.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것처럼 외쳤던 사회적 정의의 실현에서 공정의 의미를 우려내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약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예언자적 관심에서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대한 제언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⁴³ 예언서 외 다른 성서문헌들에도 이런 주제와 이슈들은 산재해 있다.

4) ‘응용성서학’ (Applied Biblical Studies)적 성찰의 강화

자연과학 분야에는 대부분 응용(application)분야가 발달돼 있다. 응용수학, 응용물리학, 응용화학, 응용생물학 등 거의 대부분의 학문분과가 응용분야로 확대되어 있다. 사회과학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응용정치학, 응용사회학, 응용경제학, 응용통계학 등 사회과학의 여러 학문 분야가 응용분야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인문학 분야에서는 응용미학, 응용언어학 등 응용분야가 개발되어 있기는 하나 대체로 인문학 다른 분야에서는 저조한 편이다. 인문학 분야에서도 학제적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이나 학문간 통섭(consilience)은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그 내용이나 결과를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응용에의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인문학이 대체로 순수학문 체계에 집착하는 성격이 짙은 데서 비롯된 현상일 수도 있다. 인문

43 한국사회의 빈부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곤 하는데, 이러한 논의를 성서학적으로 수렴하여 진지하게 탐구한 최근의 글을 위해서는 김희권, “기본소득론의 두 토대-자연법과 구약성경.” 『신학사상』 195(2021, 겨울호), 65-108을 보라. 긍정적인 연구 방향으로 공공신학적 관심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다.

학 분야는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분야보다는 외연확장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목도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디지털 인공지능 시대에는 인문학 분야에도 응용적 상상력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오늘날 현대인의 실생활에서 ‘앱’(application)은 가장 필요하고도 효과적인 장치이자 수단이다. 본래 ‘앱’은 ① 컴퓨터 운영체제에서 실행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와 ②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운영체제에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개발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렇듯 ‘앱’은 곧 ‘응용’을 의미한다. 아무리 좋은 내용/콘텐츠라 할지라도 ‘앱’이라는 응용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제대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시대이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현상이다.

21세기의 실상이 그렇다면 이제 구약학도 전통적인 본문 주석과 해석 작업에만 머물고 말 것이 아니라 그 작업을 통해 이끌어내고 우려낸 결과를 신학의 다른 분야나 신학 외의 분야에서 가져다 쓰기만을 바라고 말 것이 아니라 콘텐츠의 응용화(‘앱 개발’)에 참여하여 응용의 오류를 줄이고 ‘앱’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학원 학생들의 학위논문을 심사하다보면 많은 분야(조직신학, 기독교 교육학, 기독교 윤리학, 선교학 등)에서 다루는 주제와 관련하여 ‘성서적 배경’을 다루는 경우가 허다한데, 종종 부정확하게 성서학 관련 자료를 참고하고 인용하는 것을 볼 때가 있다. 일차적으로는 참고자의 책임이나 성서학 문헌이 좀 더 응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필자의 개인적 경험으로도 그런 요청, “성서학 논문들은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데 좀 풀어서 적용, 응용하기 좋게 쓰면 안 됩니까?” 하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요컨대 21세기는 ‘앱’/응용의 시대이다. 충실한 콘텐츠의 발굴과 더불어 그것을 보다 현실과 실정, 필요에 맞게 적용시키는 응용화가 콘텐츠 못지않

게 중요한 시대이다. 성서학이 신학 안의 여러 학문 분야와 교회에 기여하고, 나아가 인문학으로서 인접 학문 분야와 소통, 연결되기 위해서는 응용적 성서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⁴⁴

4. 끝맺는 말

이제 미흡하나마 마무리할 시점에 이르렀다. 문예사조에서 아무리 고전문학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현대인이 소급하여 고전문학의 표현양식과 방법론을 따라 창작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단테나 셰익스피어, 괴테나 두보, 김소월의 문학세계를 동경하고 좋아한다 해서 이 시대의 시인이나 작가가 그들의 방식을 따라 글을 쓰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의 문학에 나타난 문학적 정신세계로부터 자양분을 흡수할 뿐이다. 이것은 다른 예술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술세계에서 가장 기피하는 것은 답습에 의한 상투성(cliché)이다. 이것은 학문세계에서도 어느 정도 통용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성서학자가 여전히 19~20세기 초반에 구축된 방법론을 고뇌 없이 답습하며 성서를 읽어낸다는 것은 학문적 ‘클리셰’일 수 있다. ‘그때 그곳’(then and there)에서 있었던 일은 ‘지금 이곳’(now and here)의 일과 결코 무관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대 그곳’은 간직해야 할 기억일

44 메타버스(Metaverse) 시대에 성서학이 어떻게 응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를 탐색한 최근의 탁월한 연구로는 이유미, “유용한 해석적 도구인 ‘비블리카버스’(biblicaverse) 구축을 위한 제언-ID dromma의 아가 연구 가상체험기.” 『구약논단』 제28권 2호(통권 84집), 324-354를 보라. 아마도 전세계 성서학계에서 메타버스를 이용한 성서학의 발전 가능성을 탐구한 가장 최신의 연구 논문일 것으로 평가된다. 김창주는 ‘육망하는’ 존재인 인간은 이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디지털 세계를 창출하고, 그 세계를 “네페쉬의 새로운 놀이터”로 삼고 있다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아바타의 연결 가능성을 탐색한다. “하나님의 형상과 믿음의 향상-메타버스 시대의 구약읽기.” 『신학사상』 197(2022, 여름호), 9-35.

뿐 ‘지금 이곳’의 현실 자체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방법론도 따지고 보면 지금 과거의 그것과 연결돼 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과거의 것이 되었거나 되어가고 있는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관성적으로,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 때문에 답습하는 태도는 어느 면에서 지적 태만일 수 있다.

무릇 방법론(methodology)이란 길을 따라가는 탐구를 의미한다. 21세기 학자가 19세기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거나 방법적 지체현상일 수 있다. 해석사에서 배울 점은 인간의 시대적 고뇌이다. 그런데 서구의 성서 해석사에는 시대적 고뇌가 상당히 결여돼 있다. 있다 할지라도 그 시대의 고뇌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거시적으로 볼 때 시대는 이제 획기적인 대변화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인문학의 한 분야로서 성서학은 이런 시대적 변화에 조응하는 방향설정을 새롭게 해야 할 시점에서 있다. 미시적으로 볼 때도 현실 기독교회는 인구감소와 이미지 실추로 인해 날로 수축되고 있고, 신학의 제도적 기반도 흔들리고 있다. 이런 대전환의 시대에 고뇌하는 성서학자라면 방법론적 성찰, 즉 해석의 방향, 해석의 차원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네 가지 방향은 나름 가장 절실하다고 느끼는 것을 모아 정리해본 것이다. 각각은 서로 내적 연관성을 갖고 있으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체계는 결코 아니다. 하나의 제시일 뿐이다.

참고문헌

강사문, 「구약의 자연 이해」(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강성열, “코로나 위기 시대와 구약신학의 과제.” 「구약논단」제27권 4호(통권 82집),

www.kci.go.kr

216-256.

김윤성·권재준, 「그림으로 이해하는 생태사상」(서울: 개마고원, 2009).

김창주, “하나님의 형상과 믿음의 향상-메타버스 시대의 구약읽기.” 「신학사상」 197(2022, 여름호), 9-35.

김희권, “기본소득론의 두 토대-자연법과 구약성경.” 「신학사상」195집(2021, 겨울), 65-108.

라록, 앙드레 & 리피르, 폴, 「성서의 새로운 이해: 주석학과 해석학의 대화」(김창주 옮김), (서울: 살림, 2006).

배선복, “제사법의 회개에 나타난 책임과 윤리: 아렘 동사와 레위기 6장 1-7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제28권 2호(통권 84집), 105-141.

이유미, “유용한 해석적 도구인 ‘비블리카버스’(biblicaverse) 구축을 위한 제언-ID dromma의 아가 연구 가상체험기.” 「구약논단」제28권 2호(통권 84집), 324-354.

최익현, “뤼방 오지앙(Rewen Orgien)과의 대화.” 「교수신문」716호(2014/1/13일, 9면).

크니립, 룰프, 「구약신학의 과제 ①」(강성열 역),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하젤, G.F. 「현대 구약신학의 동향」(이근호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하조니, 요람, 「구약성서로 철학하기」(김구원 옮김), (서울: 홍성사, 2016).

헤이니스, S.R., 매켄지, S.L. 「성서비평 방법론과 그 적용」(김은규·김수남 역), (서울: 대한기독교교회협의회, 1997).

호렐, 데이빗 G. 「성서와 환경」(이영미 옮김), (오산: 한신대학교출판부, 2014).

지마, 페터 W. 「비판적 문헌이론과 미학」(김환태 편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3).

Aichele, George and et al., *The Postmodern Bibl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5).

Barton, John., “Understanding Old Testament Ethics.” *JSOT* 9 (1978), 44-64.

_____, “Approaches to Ethics in the Old Testament.” in John Rpgerson(ed.), *Beginning Old Testament Study* (London: SPCK, 1983), 113-130;

_____, “The Basis of Ethics in the Hebrew Bible.” *Semeia* 66 (1994), 11-22;

_____, *Ethics and the Old Testament* (London: SCM Press, 1998).

www.kci.go.kr

- _____, *Understanding Old Testament Ethics: Approaches and Explanation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2003).
- Benne, Robert., *The Paradoxical Vision: A Public Theolog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Minneapolis, Minnesota: Fortress Press, 1995).
- Brenneman, J.E., *Canons in Conflicts: Negotiating Texts in True and False Prophe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 Brett, G., *Biblical Criticism in Crisis: The Impact of the Canonical Approach on the Old Testament Stud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 Kim, Sebastian., *Theology in the Public Sphere: Publish Theology as a Catalyst for Open Debate* (London: SCM Press, 2011).
- Day, Katie and Kim, Sebastian(eds.), *A Companion to Public Theology* (Leiden: Brill, 2017).
- Childs, Brevard S., *Biblical Theology in Crisis* (Philadelphia: Westminster, 1970).
- Clements, Ronald E., *One Hundred Years of Old Testament Interpretat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6).
- Engnell, I. trans. T. Willis., *Critical Essays on the Old Testament* (London: S.P.C.K, 1970).
- Habel, Norman C., *Exploring Ecological Hermeneutics*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8).
- Habel, Norman C. & Wurst Shirley., *Earth Story in Genesi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 _____, *Earth Story in Wisdom Tradition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
- _____, *Earth Story in Psalms and Prophet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
- Hayes, John H. & Holladay, Carl R., *Biblical Exegesis* (Atlanta: John Knox Press, 2nd edn, 1987).
- Hayes, John H. ed., *Dictionary of Biblical Interpretation A-J, K-Z.* (Nashville: Abingdon, 1999).
- Kim, Minseok., *Public Theology in Korea? Rereading John Calvin* (Zürich: LIT Verlag, 2021).
- Knierim, Rolf P., *The Task of Old Testament Theology: Substance, Method, and Cases*

-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5).
- Lechte, J., *Fifty Key Contemporary Thinkers: From Structuralism to Postmodernity* (London: Routledge, 1994).
- Marty, Martin E., "Reinhold Niebuhr: Public Theology and the American Experience." *The Journal of Religion* 54/4(1974), 332-359.
- Lodge, David., *Modern Criticism and Theory*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88).
- Mills, Mary E., *Historical Israel: Biblical Israel* (London · New York: Cassel, 1999).
- Morgan, Donn F., *Between Text and Communit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0).
- Ollenburger, B.C. & et al (eds.), *The Flowering of Old Testament Theology: A Reader in Twentieth-Century Old Testament Theology, 1930-1990* (Winona Lake, Ind.: Eisenbrauns, 1992).
- Otto, Eckart., "The Study of Law and Ethics in the Hebrew Bible/Old Testament." in M. Saebo(ed.), *Hebrew Bible/Old Testament: The History of Its Interpretation* III/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5), 594-621.
- Rendtorff, R., *Canon and Theology* (Edinburgh: T. & T. Clark, 1994).
- _____, "The Paradigm in Changing: Hopes and Fears," in V. Philip Long (ed.), *Israel's Past in Present Research: Essays on Ancient Israelite Historiography* (Winona Lake, Ind.: Eisenbrauns, 1999), 51-68.
- Rodd, Cyril., *Glimpses of a Strange Land: Studies in Old Testament Ethics* (Edinburgh: T. & T. Clark, 2001).
- Syren, R., "Before the Text After: The Scandinavian School and the Formation of Scripture," in D. Smith-Christopher(ed.), *Text and Experience: Towards a Cultural Exegesis of the Bible*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225-237.
- von Rad, Gerhard, *Holy War in Ancient Israel* (translated and edited by Marve J. Dawn & introduction by Ben C. Ollenburger),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1).
- Whitlelam, K., *The Invention of Israel* (London: Routledge, 1996).
- Wright, Christopher J.H., *Old Testament Ethics for the People of God* (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2004).

검색어

역사비평

인공지능

생태학

윤리 철학

공공신학

응용성서학

A Consideration on the Directions of Old Testament Studies in the Times of the New Normal

Myung-Soo Suh

Hyupsung University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presen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the outbreak of the coronavirus (COVID-19) is causing breakthrough changes in existing living norms, rules, and real life of contemporary society. Efforts to explain these changes and adapt to changing life situations are being developed in various fields. In line with this trend, this paper discusses the directions that Old Testament studies should pursue.

For this task, we first summarize the history of interpretation of the Old Testament led mainly by Western scholars from the late 19th century, and

www.kci.go.kr

then look at the deficiencies. On the basis of this reflection, I explore some directions that Old Testament studies should pursue and strengthen in times of the new normal.

Firstly, ‘ESG’ (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as a spirit of the times and ecological studies should be strengthened.

Secondly, ethical and social philosophical issues should be strengthened.

Thirdly, public theological consideration should be strengthened.

Fourthly, ‘applied biblical studies’ should be developed.

In conclusion, methodology mirrors exploration along the path. It may be anachronistic or methodological deficiency for a 21st-century scholar to follow the path of the 19th century. What we should learn from the history of interpretation is the importance of human agenda in our times. Hence, the history of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West reveals its methodological lack of correlation to the anguish of the times. Even if there had been, it did not fully reflect the issues of the era.

Macroscopically, the time is now entering a phase of revolutionary change. As a field of humanities, biblical scholarship is at a point where it is necessary to renew the reorientation that responds to these changes of the times. Even microscopically, the real Christian church is shrinking day by day due to population decline and loss of respect.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of theology is also shaking. In this time of great transformation, biblical scholars too are agonizing over methodological reflection, that is, the direction of interpretation, and the dimension of interpretation.

The four directions presented above are summarized by collecting what I feel are most urgent today. Each has an inner connection with each other, but it is by no means a system that everyone can relate to. It’s rather a proposal to start the conversation.

Keywords

Historical Criticism

Artificial Intelligence

Ecology

Ethical Philosophy

Public Theology

Applied Biblical studies

- 투고일: 2022년 7월 30일
- 심사일: 2022년 8월 09일
- 게재 확정일: 2022년 8월 24일

www.kci.go.kr